

신비로운 대자연과 인간의 깊은 심연 '주문을 외우다'

김25작가 개인전, 4~24일 서울 금산갤러리·금산원도우갤러리 언어예술 작품에 대입, 시적 분위기 연출... '광주아트페어' 참여

'페인팅과 텍스트 조합으로 생동감을 만들어내는 작품', '추상적 이미지와 언어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작업방식'.

김25작가(본명 김유미)의 작품과 작업 특징을 집약한 표현이다. 인간 심연을 파고드는 심미적 서사와 대자연의 추상적으로 구현한 그림은 함축적이면서도 몰입감을 선사한다.

김25작가의 개인전이 서울 금산갤러리와 금산원도우갤러리에서 4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전시 주제는 'Cast a Spell' (주문을 외우다). 다채로운 최신작 35점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고뇌가 담겨 있다.

그동안 김 작가는 바다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역동적인 움직임과 상충하는 시각적 언어는 웅장하면서도 변화무쌍하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가늠할 수 없는 광경은 마치 화폭 너머 절대자가 존재하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김 작가는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인 키아프(KIAF)에 금산갤러리 소속 작가로 참가한 바 있다. 특히 '마스터 피스존'으로 편입된 레전드 작가들의 작품과 나란히 전시되기도 했다. 그는 "이우환, 박서보 등의 작품이 걸리는 존에 부족한 제 작품이 걸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 주제 '주문을 외우다'라는 뜻의 'Cast

a Spell'은 인간 내면의 심연을 상징한다. 문명과 자연에 대한 일련의 고뇌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운율이나 비유, 서사구조 등 언어예술을 작품에 대입해 은유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각적 예술과 언어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융합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 것이다.

임인영 미학박사는 "바다는 잘나의 기록이자 기



'Cast a spell'

나긴 서사이며 도도하게 흘러가는 역사이자 생성과 소멸을 같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며 "작품 속에 파고든 시와 문학 속 텍스트는 파도와 물결이라는 가시적 형태로 작가가 받은 각기 다른 영감을 차별화된 색으로 주관적인 감정과 내적인 정서를 담아내며 감성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평한다.

이번 출품작 이미지들은 하나같이 웅장하면서도 다층적이다.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천지 창조 직전 태초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다. 특히 두 갈래로 갈라지는 바다를 구현한 작품은 인간 문명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읽힌다. 한편으로 요동치는 바다는 성경 속 출애굽의 서사를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화가이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문학애호가이기도 하다. '어린 왕자'를 비롯해 '노인과 바다', '모비딕' 등을 탐독했다. 특히 변화무쌍한 바다를 보면 인간의 삶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노아의 방주' 시리즈를 작업했던 것은 그런 연유다. 시와 소설의 문장언어가 조형과 색채라는 시각언어와 만나 발현하는 아우라는 풍요로우면서도 탐미적인 감흥을 선사한다.

김 작가는 "파도가 된 시, 그림이 된 텍스트는 '파도'라는 객관적인 현실에 나의 주관적 감정, 내적



김25작가



'Cast a spell'

정서를 서정적으로 묘사하는 작업이었다"며 "인간에게 바다는 원초적인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작가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아트페어에도 금산갤러리 화랑 작가로 참여한다. 지난달 키아프 참가를 시작으로 올 가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그는 "미친 듯이 몰입하고, 표현과 사고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세계를 꿈꾼다"고 했다. 여러 작가들을 좋아하지만

모니스트 대가들 작품을 좋아한다. "최근에는 안젤르 키퍼 같이 서사를 풀어내는 작가가 좋습니다. 거대한 스케일에 특히 매료되지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거대한 스케일 작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한편 김 작가는 한편 김 작가는 홍익대 서양화과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아트 마이애미 두바이 아트페어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선선해진 가을 전통공연 만끽

전남도립국악단이 오는 5일부터 연말까지 '그린국악 시즌4'를 펼친다. 국악단의 창극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 시즌4' 5일부터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

올해 '그린국악'이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있다.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 시리즈는 현대사회 화두인 환경 파괴 문제 등을 가무약회(노래, 춤, 연주, 연희)로 환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돼 왔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이 토요일 가무약회 '그린국악 시즌4'를 오는 5일부터 연말까지(오후 4시)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 등에서 펼친다.

먼저 5일에는 판소리 '타루비 대목'과 대금 독주곡 '누구나 외딴 섬이다',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남도민요 '들국화' 등이 올려 퍼진다.

이어 기획공연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오마주-사제'는 오는 12, 19일 각각 무안 남도소리올림픽과 화순 한우문화스포츠센터에서 볼 수 있다.

김영자, 김향순을 비롯해 강송대, 유순자, 서영호, 손혜영 등 국악계 명인들과 전남도립국악단이

사제의 연을 맺고 선보이는 합동 공연으로 '현천 소동패놀이'를 비롯해 '동해안 별신굿', '호남여성농악', '박재희류 벽파입춤'을 선보인다.

10월 26일과 11월 16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 경북도립국악단 및 국공립 예술단체들을 위한 교류장 '국악이음'으로 흥을 돋운다. 진유림류 입춤 고인 '행화지무'로 시작하며 타악 앙상블 '타인공감', 단막 창극 '뽕파전' 등도 관객을 만난다.

메나리 주제에 의한 국악 관현악 '흥'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의 유장영이 편곡한 남도 뱃노래 '여명', 이용탁이 작곡한 국악 관현악 '뫼'가 무대화된다.

조용안 예술감독은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찾아온 가을, 시원한 공연장을 찾아 한국 음악의 정서를 만끽할 수 있는 전통 작품들을 마련했다"며 "특집 공연들은 10월부터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니 전통 공연으로 풍성한 하반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관람료 1만 원, 6세 이상 관람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20세기 명화극장 '분홍신' 만나요

광주극장 '월간 클래식' 6일 상영

"왜 춤을 추고 싶어 하죠?", "왜 살고 싶어 하는 데요?"

유명 발레단을 이끄는 보리스(안톤 윌브룩 분)는 우연히 초대받은 파티에서 비키 페이지(모이라 시어러)를 만난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는 발레에 대한 열망을 무기 삼아 보리스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하지만 공연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면서 보리스는 비키에게 남다른 감정을 품는다. 그는 비키를 "세계적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며 '분홍신'의 주인공 역을 맡긴다. 예술과 사랑을 놓고 갈등하다 죽고 마는 젊은 발레리나의 서사는 예술가들의 트롤리 딜레마(어느 한 쪽을 쉽게 고를 수 없는

상황)를 떠올리게 한다.

광주극장이 '월간 클래식: 20세기 명화극장 10월 상영작'으로 마이클 파웰-에머릭 프레스버거 작 '분홍신'을 상영한다. 오는 6일 광주극장에서.

1948년 만들어진 이 작품은 이듬해 아카데미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으며 미술상, 음악상을 수상할 만큼 영상이 뛰어나다.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구두'를 각색한 내용이며 사랑과 배신, 예술에 대해 폭넓은 사유를 이어간다.

당대 유명 무용수들이 안무에 참여한 17분 길이의 발레 시퀀스는 영화의 백미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나 쇼팽의 '레 실피드'와 같은 발레음악도 삽입돼 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발레영화 '분홍신'은 1950년대 초반 제작됐던 '파리의 미국인',



'분홍신'

'사랑은 비를 타고', '밴드 웨건' 등 1950년대 다양한 뮤지컬의 모델"이라며 "가을의 초입, 파웰과 프레스버거의 예술적 가치관이 응축돼 있는 명작을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재단, 문화상품점 '들락 DLAC' 온라인 스킵 개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상품 브랜드 '들락 DLAC'은 아시아의 문화(Dots and Lines of Asia Culture)를 의미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문화상품점 '들락 DLAC' 온라인 스킵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은 오프라인을 통해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개설한 온라인 스킵에서는 '들락 키즈' 라인의 교구재를 비롯해 놀이, 문구, 도서 등을 판매한다. 또한 ACC 전시 및 공연 연계 상품인 '들락 콘텐츠' 등을 판매한다. 들락 에코백,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 바이닐 '예언', '아시아의 아시아 여행' 옥스퍼드 블루 등이 대표 상품이다.

온라인 스킵 개점에 따라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전시·공연 등 문화와 연계된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은 '들락 DLAC' 온라인 스킵 개점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10월 한 달 전 품목 무료 배송서비스 외에 12월까지 매달 5명의 베스트 후기 작성자를 선정, '들락 굿즈 키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매장 방문, 온라인 스킵 회원 가입 인증 시 소정의 경품도 증정한다.

권성자 팀장은 "이번 온라인 스킵 개설로 ACC의 콘텐츠와 연계된 문화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독창적인 문화예술상품의 영역을 확장해 고객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들락 에코백'

(ACC재단 제공)

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